

당 프리미엄 對 현역 프리미엄... 소지역주의가 변수

곡성군수

곡성군수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유권기, 무소속 허남석, 무소속 배병재 후보 간 3자 대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곡성군 유권자는 2만7000여명. 투표율(역대 평균 77%)을 감안하면 2만1000여명이상이 투표할 것으로 보여 1만표 가량을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선거를 이틀 앞둔 2일 현재 지역정치권에서는 당 프리미엄이 있는 유 후보와 재선을 노리는 무소속 허 후보 간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 교육위원 출신으로 인지도가 만만치 않은 배병재 후보도 상당한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배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한다고 보고 8500표 정도라도 당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의 승부는 '현역 프리미엄 대 당 프리미엄'의 싸움이다.

유 후보 측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은 선거 초반부터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 프리미엄은 막판 당 지도부의

3자대결속 유권자 적어

8500표로 당선될 수도

지원 유세와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에 대한 뿌리 깊은 애정에서 더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에서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농민단체 조직에 영향력을 가졌던 조형래 전 군수의 지원이 있어 당 프리미엄 이상의 고정표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허 후보 측은 막강한 조직력이 당 프리미엄을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규모가 작아서 당 프리미엄보다는 조직이 더 투표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분석이다. 4년 동안 군 곳곳에 혜택을 준대 대한 반응도 선거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의 경우 선거에서 소지역주의가 나타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선거구(곡성읍·목사동·고달·오곡·죽곡면)와 2선거구(석곡·

■곡성군수 후보

| | | | |
|---|---|---|---------|
|  |  |  | |
| 정당 | 새정치민주연합 | 무소속 | 무소속 |
| 이름 | 유근기(51) | 허남석(58) | 배병재(65) |
| 경력 | 전남도의원 | 곡성군수 | 전남도교육위원 |

삼기·검·옥과·오산·입면)의 선거여론이 다소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다.

양 선거구의 인구는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유 후보는 1선거구 출신인 반면, 허·배 후보는 2선거구 출신이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삼기면이 고향인 배 후보는 4년 전 전남 인근 6개 시군에서 4명의 후보가 나와 1명을 선출했던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되는 등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허 후보 측은 "허 후보의 고향

이 겸면이지만 학교는 곡성읍에서 나와 소지역주의 영향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변수가 작은 만큼 과거 전력과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세 후보 모두 비리 전력이 없다.

다만, 허 후보 측은 당내 심사에서 공천 배제된 부분과 군수 재임 때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점, 최근 불법 여론조사로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점 등 때문에 '부정적 여론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8곳 우세·12곳 혼전

전남 기초단체장 판세분석

순천은 열세·나누는 박빙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8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과 전남도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당 여론조사와 현지 분위기 등을 분석한 결과, 22곳의 시군 중 함평·진도·강진·무안·보성·고흥·담양·구례는 새정치연합 후보가 우세한 판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순천의 경우 열세로 분류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순천시청 선거의 경우 현역 시장인 조중훈 후보가 정월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허석 후보를 따돌리고 안정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새정치연합 공천을 받은 후보가 사퇴해 무소속 후보들끼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안을 제외한 12곳에서는 혼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무소속 후보들이 후보단일화를 성사하며 당 프리미엄을 상쇄하고 있어 선거전이 만만치 않은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수시장 선거는 주철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후부터 현역 시장인 무소속 김충성 후보를 앞섰고 있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는 새정치연합 이상열 후보에 맞서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이 거센 가운데 새정치연합 공천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심판론이 제기되며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주시장은 현직 단체장인 임성훈

후보가 새정치연합 강인규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나주는 전통적으로 무소속이 강세를 보인 지역일 뿐 아니라 이번 선거전이 인물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새정치연합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해남군수 선거의 경우 박철환 현 군수가 선거전 초반 우위를 보여왔으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상 정후가 나타나면서 무소속 김병욱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완도군수 선거는 새정치연합 신우철 후보와 무소속 김인철·이용성·송주호 후보가 등록했지만 김인철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되며 예측불허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화순군수 선거에서는 '형제 군수'인 무소속 전정준 후보와 '부부 군수'인 무소속 임호경 후보가 조직력을 내세워 선전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 구중곤 후보도 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맞서고 있어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되고 있다.

장성군수 선거는 새정치연합 김양수 후보와 무소속 유두석 후보가, 영암군수 선거는 새정치연합 전동평 후보와 3선을 노리는 무소속 김일태 후보가 우열을 가늠하기 힘든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장흥군수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소속의 이명용 현 군수가 무소속 김성 후보에게 백중우세,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기호 현 군수가 무소속 김준성 후보에게 백중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당 관계자는 각각 분석했다.

또 새정치연합 측은 김재무 광양군수 후보는 무소속 정현복 후보와, 유근기 곡성군수 후보는 무소속 허남석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판세 (새정치연합 분석)

| 판세 | 지역 |
|---------|-------------------------------------|
| 우세(8곳) | 담양·구례·고흥·보성·강진·진도·함평·무안 |
| 혼전(12곳) | 목포·여수·나주·광양·장성·곡성·화순·장흥·완도·해남·영암·영광 |
| 열세(1곳) | 순천 |

※ 신안은 무소속 후보간 대결

전·현군수 4번째 대결... 혈연·지연 조직력에 달려

구례군수

구례군수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서기동 현 군수와 무소속 전경태 전 군수의 양강 구도 속에 세대교체를 노리는 무소속 김종영·정정섭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가에서는 유권자 2만3000여명 중 사전투표 영향으로 투표율을 80%(1만8400여표) 정도로 예상할 경우, 8500표면 당선 안정권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 난립과 박빙 접전으로 6500~7000표 정도라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4번째 격돌하는 서, 전 후보 간 전장의 승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현재까지 두 후보의 전적은 2승1패로 서 후보가 앞서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이번 지방선거도 초접전으로 전개되고 있어 승부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두 후보의 첫 승부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로,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한 전 후보가 무소속 서 후보를 쉽게 이겼다. 이

선거 때마다 박빙 접전

부동층 막판 최대 변수

어 제4회와 5회 지방선거(2006년, 2010년)에서는 반대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후보로 나선 서 후보가 전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하지만, 표차는 730표, 746표에 불과했다.

이번 네 번째 맞대결은 현직 군수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장까지 거머쥔 서 후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선 5기 때 서 후보가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첫 주민소환 투표 대상이었다는 약점이 있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역정치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구례군은 전통적으로 혈연·지연으로 묶여진 조직력이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4명 후보 중 전·김 후보가 전체 인구 42%를 차지하는 구례읍 출신이고 서·정 후보는 면 출신이어서 소지역주의가 승패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지적이다.

■구례군수 후보

| | | | |
|---|--|---|---|
|  |  |  |  |
| 정당 | 새정치민주연합 | 무소속 | 무소속 |
| 이름 | 서기동(64) | 김종영(56) | 정정섭(50) |
| 경력 | 구례군수 | 군의원 | 전경태(66) 전 구례군수 |

변수는 새정치민주연합 구례군수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 지지세력의 표심이다.

이에 대해 전 후보 측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경선 때 접전을 벌였던 박 전 의장의 골수 지지층 70~80%는 전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여 우리가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 후보 측은 "경선 때 10%포인트의 차이는 '서기동 대 반서기동' 싸움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박 전 의장 지지표가 그대로 따라오는 표가 아니어서 본선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마지막 변수는 부동층. 서 후보 측은 부동층을 10% 정도로 보고 "지난 두 번의 선

거보다 분위기가 좋고 토론회 등을 통해 나타난 인물론 때문에 안정적 승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전 후보 측은 젊은층과 자영업자가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아 부동층을 20%로 보고 관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마지막 승부수로 던졌다.

<끝>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제53회

The 53th JeollaNamdo Sports Festival

전라남도체육대회

황토골 무안에서 하나되는 화합체전

2014. 6.10(화) ▶ 6.13(금) 4일간

무안스포츠파크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 전라남도체육회
주관 | 무안군 무안군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후원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무안군